

2019년 그리스도인 일치기도주간 기도자료집

“너희는 정의, 오직 정의만 따라야 한다”

(신명기 16장 18-20절)



The Cleansing of the Temple [fresco by Giotto, in the Scrovegni Chapel, Padua, Italy, ca 1305]



한국그리스도교신앙과직제협의회

그리스도인 일치 기도 주간

2019년 1월 18-25일

“너희는 정의, 오직 정의만 따라야 한다”

(신명기 16:18-20)

세계교회협의회 신앙직제위원회 · 교황청 그리스도인일치촉진평의회
한국 그리스도교 신앙과 직제협의회

목차

그리스도인 일치 기도 주간을 준비하는 이들에게 · 6	
주제 성구 · 8	
주제 소개 · 9	
2019년 그리스도인 일치 기도 주간의 자료 준비 · 12	
일치 기도 예식 · 14	
예식 소개 · 14	
예식 순서 · 15	
8일 간의 성경 묵상과 기도 · 24	
제1일 공정을 물처럼 흐르게 하여라 · 24	
제2일 너희는 말할 때에 ‘예’ 할 것은 ‘예’ 하고, ‘아니오’ 할 것은 ‘아니오’ 라고만 하여라 · 26	
제3일 주님은 너그러우시고 자비하신 분 · 28	
제4일 지금 가진 것으로 만족하십시오 · 30	
제5일 가난한 이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고 · 32	
제6일 그 이름 만군의 주님이시다 · 34	
제7일 여인아, 네 믿음이 참으로 크구나! · 36	
제8일 주님은 나의 빛, 나의 구원 · 38	
인도네시아의 교회 일치 상황 · 40	
그리스도인 일치 기도 주간의 주제 목록(1968-2019년) · 45	
그리스도인 일치 기도 주간의 역사에서 중요한 날들 · 49	
5기 〈한국 그리스도인 일치아카데미〉 수강생 모집 · 50	

*일러두기: 성경은 「개역개정」을 사용하였습니다.

그리스도인 일치 기도 주간을 준비하는 이들에게

연중 일치 추구

전통적으로 북반구에서 그리스도인 일치 기도 주간으로 정해진 기간은 1월 18-25일이다. 이 주간은 1908년에 폴 왓슨(Paul Wattson)의 제안에 따라 성 베드로 사도좌 축일과 성 바울 사도의 회심 축일 사이의 기간으로 정해졌기에 상징적인 의미를 지닌다. 그러나 1월이 휴가철인 남반구의 교회들은 흔히 다른 날들을, 예컨대 교회 일치를 상징하는 날인 성령 강림 대축일 무렵(1926년에 '신앙과 직제 운동'이 제안한 기간)을 그리스도인 일치 기도 주간으로 지내기도 한다.

이 기간은 신축성을 가질 수 있으므로, 여기에 제시된 자료를 활용하여, 연중 어느 때이든, 여러 교회가 이미 맺고 있는 친교를 드러내고, 그리스도의 뜻인 완전한 일치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기를 바란다.

자료의 수정

이 자료는 지역 차원의 용도에 맞추어서 언제든지 수정해도 좋다는 양해 아래 제공된다. 수정할 때는 그 지역의 전례나 신심 관행, 전반적인 사회적 문화적 상황을 고려하여야 한다. 몇몇 지역에서는 자료 수정을 위한 교회 일치 기구들이 이미 조직되어 있다. 우리는 다른 지역에서도 수정 작업을 위하여 그러한 기구들이 생겨나기를 바란다.

자료의 사용

- 공통된 하나의 예식으로 함께 그리스도인 일치 기도 주간을 지내는 교회들과 그리스도인 공동체들에게 일치 기도 예식서가 된다.

- 교회들과 그리스도인 공동체들은 각자의 고유한 예식에 기도 주간을 위한 자료를 끼워 넣어 사용할 수 있다. 일치 기도 예식서의 기도들이나 ‘8일 간의 성경 묵상과 기도’, 또는 이 자료에 첨가된 기도 가운데 일부를 각자의 환경에 맞추어 사용할 수 있다.
- 또한 그리스도인 일치 기도 주간을 지내는 공동체들은 그 주간에 날마다 예배를 드릴 때 ‘8일 간의 성경 묵상과 기도’ 내용들을 그 예식에 도입할 수 있다.
- 또한 이 기도 주간의 주제에 관하여 성경 공부를 하고자 하는 이들은 ‘8일 간의 성경 묵상과 기도’에 제시된 성경 구절들과 묵상 자료를 기본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날마다 별이는 토론은 청원 기도로 마무리 할 수 있다.
- 그리스도인 일치를 위하여 개인적으로 기도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이 자료가 그들의 기도 지향을 하나로 모으는 데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그들은 세계 곳곳에서 그리스도교 교회의 더욱 명백한 일치를 위하여 기도하는 사람들과 친교를 이루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다.

주제 성구

신명기 16장 11~20절 (개역개정)

너와 네 자녀와 노비와 네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너는 애굽에서 종 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너희 타작 마당과 포도주 틀의 소출을 거두어 들인 후에 이레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네 자녀와 노비와 네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즐거워하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레 동안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모든 소출과 네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너의 가운데 모든 남자는 일 년에 세 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뵈옵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뵈옵지 말고,

각 사람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시는 각 성에서 네 지파를 따라 재판장과 지도자들을 둘 것이요 그들은 공의로 백성을 재판할 것이니라.

너는 재판을 굽게 하지 말며 사람을 외모로 보지 말며 또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지혜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인의 말을 굽게 하느니라.

너는 마땅히 공의만을 따르라. 그리하면 네가 살겠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시는 땅을 차지하리라.

주제 소개

너희는 정의, 오직 정의만 따라야 한다

(신명기 16:18-20)

전 세계 그리스도인들은 해마다 함께 모여 일치의 증진을 위해 기도드린다. 이는 부패와 탐욕과 불의가 불평등과 분열을 불러일으키는 세상에서 우리가 가지는 기도 모임이다. 단절된 세상 안에서 드리는 하나 된 우리의 기도는 강력한 힘을 지닌다. 그러나 개별 그리스도인이나 개별 그리스도교 공동체로서 우리는 자주 불의에 연루된다. 이제 우리는 하나 되어 정의를 증언하고, 이 세상의 깨진 상처를 치유하는 그리스도의 은총의 도구가 되도록 함께 부름을 받았다.

2019년 그리스도인 일치 기도 주간의 기도 자료는 인도네시아 그리스도인들이 준비하였다. 2억 6천5백만 명 인구의 86%가 무슬림으로 추산되는 인도네시아는 가장 많은 무슬림 인구를 가진 나라로 유명하다. 그런데 인도네시아 인구의 약 10%는 다양한 전통의 그리스도인들이다. 인구나 국토의 넓은 면적을 보면 인도네시아는 동남아시아에서 가장 큰 나라이다. 인도네시아에는 17,000개가 넘는 섬, 1,340여 개의 다양한 민족 집단, 740개 이상의 토착어가 있다. 그럼에도 인도네시아는 ‘바하사 인도네시아’라는 단일한 국어를 통해 다양성 안에서 일치를 이루고 있다. 인도네시아는 판차실라(Pancasila)¹⁾라는 다섯 가지 원칙에 기반하고 비네카 통갈 이카(Bhineka Tunggal Ika: 다양성 안의 일치)를 좌우명으로 하

1) 판차실라(Pancasila)라는 다섯 가지 원칙은 다음과 같다. (1) 유일신에 대한 믿음, (2) 공정하고 문명화된 인본주의, (3) 인도네시아의 통합, (4) 합의제와 대의제를 통한 민주주의 실현, (5) 인도네시아 국민에 대한 사회 정의

여 건국되었다. 인도네시아는 민족, 언어, 종교의 다양성을 넘어 연대를 실천하고 협력하며 살아가는 고통 로용(Gotong Royong)의 원칙에 따라 살아 왔다. 이는 삶과 노동, 애도와 축제의 모든 측면을 함께 나눈다는 것이며, 모든 인도네시아인을 형제자매로 여긴다는 의미이다.

언제라도 깨어지기 쉬운 이 화합은 오늘날 새로운 방식으로 위협받는다. 인도네시아가 최근 수십 년 간 달성해 온 경제 성장의 대부분은 경쟁 위주의 체계 위에서 이루어졌다. 이는 고통 로용의 협동심과는 극명하게 대조되는 것이다. 여러 형태로 겪고 있는 부패는 정치와 기업을 물들이고, 흔히 환경에 치명적인 악영향을 동반한다. 특히 부패는 정의와 법 집행을 약화시킨다. 정의를 증진하고 약자를 보호해야 하는 이들이 너무도 빈번히 정반대의 행동을 한다. 그 결과 빈부격차가 확대되어 왔고, 그토록 풍부한 자원을 지닌 나라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빈곤한 생활을 꾸려가야 하는 치욕을 겪고 있다. “쌀로 그득한 광 안의 생쥐가 굶주림으로 죽는다.”라는 인도네시아 속담이 있다. 한편 특정 민족, 종교 집단들은 흔히 긴장을 고조시키는 방식으로 부를 쌓아 왔다. 공동체들끼리 서로 경쟁하는 과격화 현상이 심화되었고, 이러한 과격화 현상은 특정 공동체들을 악마처럼 만드는 소셜 미디어의 오용으로 악화되고 있다.

이러한 환경에서 그리스도교 공동체들은 불공정한 현실에 대한 공동 관심과 공동 대응에 동참하면서 그들의 일치를 새롭게 발견해 나가고 있다. 동시에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러한 불의에 직면하여 우리가 이에 어떠한 방식으로 연루되어 있는지 살펴보아야 한다. ‘이들이 모두 하나 되게 하소서.’ 하신 예수님의 기도를 마음 깊이 되새길 때에만, 우리는 다양성 안에 일치하는 삶을 증언할 수 있다. 우리는 바로 그리스도 안의 일치를 통해서 불의와 싸우며 도움이 필요한 그 희생자들을 위해 봉사할 수 있다.

그러한 관심에 따라 인도네시아 그리스도인들은, “... 너희는 정의, 오직 정의만 따라야 한다. ...”는 신명기 말씀이 그들의 상황과 필요와 깊이 관련된 이야기임을 깨달았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에 들어가기에 앞서 하나님 백성은 하나님께서 그들과 맺으신 계약에 충실할 것을 새롭게 다짐한다. 이 성경 구절은 계약의 백성이 지내는 축제들이 핵심 주제가 되는 신명기 한 장 안에 들어 있다. 각각의 축제 때마다 이 백성은 이러한 가르침을 받는다. “너희는 축제를 지내는 동안, 너희의 아들과 딸, 남종과 여종, 그리고 너희 성안에 사는 레위인과 이방

인과 고아와 과부와 함께 기뻐하여라”(신 16:14; 16:11도 참조). 인도네시아의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이 예전에 누렸던 정신, 곧 이와 같이 모든 이를 포용하는 축제의 정신을 공동체들 안에 회복할 길을 모색하고 있다. 성경의 이 긴 장의 끝마디에 판관의 임명에 관한 두 개의 절이 있는 것이 이상해 보일 수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인도네시아 상황에서 모든 이를 위한 축제와 정의 사이에 생생한 연관성이 드러난다. 예수님을 통해 맺은 계약의 백성으로서 우리는 의로움에 주리고 목마르며 의로움 때문에 박해당하는 모든 이가 천상 잔치의 기쁨을 맛보리라는 것을 알고 있다. “하늘 나라가 그들의 것이다”(마 5:6, 10).

그리스도의 교회는 이러한 하늘 나라를 미리 맛보도록 부름받았다. 그러나 우리의 분열로 그 부름에 응답하지 못하고 있다. 우리는 하나님 사랑의 표징이 되지 못하고 말았다. 불의는, 분열을 만연시켜 인도네시아 사회를 갈라지게 해 왔을 뿐 아니라 교회의 분열도 부추겨 왔다. 우리는 분열을 불러온 불의를 누우친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또한 그리스도의 권능이 우리를 용서하고 치유할 수 있음을 믿는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에서 우리가 일치하고 있음을 깨닫고, 불의의 종식을 위해 주님 은총을 청하고 또 우리의 분열을 불러온 죄에 대해 주님 자비를 간구한다.

주제 성구에 초점을 맞춰 8일 간의 성경 묵상과 기도 예식이 거행될 것이다. 일치와 정의에 관한 깊은 묵상을 위하여 그날의 주제는 불의의 결과에 맞서는 투쟁을 드러내도록 신중히 선정하였다.

제1일: 공정을 물처럼 흐르게 하여라(암 5:24)

제2일: 너희는 말할 때에 ‘예’ 할 것은 ‘예’ 하고, ‘아니오’ 할 것은 ‘아니오’라고만 하여라(마 5:37)

제3일: 주님은 너그러우시고 자비하신 분(시 145:8)

제4일: 지금 가진 것으로 만족하십시오(히 13:5)

제5일: 가난한 이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고(눅 4:18)

제6일: 그 이름 만군의 주님이시다(렘 10:16)

제7일: 여인아! 네 믿음이 참으로 크구나!(마 15:28)

제8일: 주님은 나의 빛, 나의 구원(시 27:1)

2019년 그리스도인 일치 기도 주간의 자료 준비

올해의 일치 기도 주간의 기도 자료는 인도네시아의 여러 그리스도교 공동체 대표들로 구성된 준비 팀이 마련하였다. 이 교회 일치 팀은 인도네시아 교회 연합(Persekutuan Gereja-gereja di Indonesia, PGI)의 헨리에타 후타바라트 레방 목사(Rev. Dr Henriette T. Hutabarat Lebang)와, 인도네시아 주교회의(Konferensi Waligereja Indonesia, KWI)의 이냐시우스 수하료 몬시뇰(Mgr Ignatius Suharyo)의 지도 아래 꾸러졌다. 특히 인도네시아 교회 연합과 인도네시아 주교회의의 지도자들과 이 자료를 준비하는 데에 힘써 주신 분들께 감사드린다.

- 라헬 다울라이(Ms Rahel Daulay, M.L.M., 교회 음악가, 자카르타 신학 대학 강사, 인도네시아 감리교회)
- 주니프리우스 굴툼 목사(Revd Dr Junifrius Gultom, 인도네시아 뵈엘 신학 대학원 학장, 인도네시아 뵈엘 교회)
- 주스티시아 폭스 데이 하투 목사(Revd Dr Justitia Vox Dei Hattu, 자카르타 신학 대학 강사, 몰루카스 개신 교회 목사)
- 헨리에타 후타바라트 레방 목사(Revd Dr Henriette T. Hutabarat Lebang, 인도네시아 교회 연합 의장, 토라자 교회)
- 이레네 움부 롤로 목사(Revd Irene Umbu Lolo, M. Th. 슴바 크리스천 교회 목사)
- 윌리엄스 빌 마일로아(Mr Williams Bill Mailoa, S.Si., 인도네시아 크리스천 교회의 전례와 교회 음악 분과 위원)
- 올란다 판도우 목사(Revd Yolanda Pantou, 인도네시아 크리스천 교회 신앙과직제 위원회 위원)
- 수산 사후실라와네(Ms Susan Fr. Sahusilawane, S.Si., 인도네시아 월드 비전 직원, 자카르타 신학 대학 전례와 교회 음악 센터 위원, 서 인도네시아 크리스천 교회)
- 아구스 올라하이 신부(Revd Fr Agus Ulahay, 인도네시아 주교회의 교회일치와 종교간대화 위원회 총무)

- 스리 율리아나 목사(Revd Sri Yuliana, M. Th, 인도네시아 교회 연합 일치와 교회 쇄신 총무, 남 수마트라 크리스천 교회)

준비 팀이 마련한 2019년 그리스도인 일치 기도 주간 자료집은 교황청 그리스도인 일치촉진평의회와 세계교회협의회 신앙과직제위원회가 공동으로 주관하는 그리스도인 일치 기도 주간 국제준비위원회에 제출되었다. 자카르타에 있는 인도네시아 교회 연합 게스트 하우스에서 2017년 9월 3일부터 8일까지 열린 회의에서 초안을 수정하고 최종 확정하였다.

국제준비위원회는 자카르타의 칼라파 가딩에 있는 회중교회의 토라자 교회(Gereja Toraja Jemaat Kota)와 가톨릭 성 야고보 성당(Gereja Katolik Santo Yakobus)의 회중들과 함께 예배할 기회를 가질 수 있었다. 또한 아름다운 인도네시아 미니어처 파크를 방문하여 인도네시아 국민들이 지닌 여러 문화와 종교의 다양성과 풍요로움, 그리고 이 커다란 나라를 일치시키는 기본 원칙들에 대한 이해를 키울 수 있었다. 인도네시아 그리스도인 포럼 위원들과 나누는 대화의 시간 또한 인도네시아 교회들 간의 교회일치적 우정과 평화롭고 공정한 인도네시아 사회 건설을 위한 그 책무를 이해하는 데에 도움을 주었다.

회의 마지막 날에 국제준비위원회는 자카르타 신학 대학의 학생들과 교수진, 대학 내에서 일하는 교회 지도자들과 평신도들에게 그리스도인 일치 기도 주간을 소개하고 여러 다양한 맥락에서 활용할 방법을 안내할 시간을 가졌다. 세계교회협의회 신앙과직제위원회 실무진도 신앙과직제위원회의 문서 『교회: 공동의 전망을 향하여』(*The Church: Towards a Common Vision*)의 바하사 인도네시아 번역문을 소개하였다.

국제준비위원회는 친절하게도 게스트 하우스에서 회의를 주최한 인도네시아 교회 연합과 머무는 동안 편안하게 해 준 직원들, 특히 스리 율리아나 목사와 아브디엘 타니아스 씨에게 감사드리고자 한다. 또한 인도네시아 주교회의 직원들, 특히 아구스 올라하이 신부의 도움에 감사드린다. 자카르타 신학 대학에서 만나 절 동안 세미나를 진행할 수 있도록 도와준 대학 운영진과 직원들에게도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

일치 기도 예식

예식 소개

이 예식은 일치, 정의, 자비에 관한 담론에서, 행동과 구체적 노력으로 그리고 개인의 삶과 그리스도인 공동체 삶에서 일치, 정의, 자비의 실천으로 나아가야 할 중요성을 강조한다.

예식 여행을 준비할 때 예식의 두 가지 특별한 요소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첫 번째 요소는 **참회의 기도**에서 낭독자들을 선택하는 것에 관한 것이다. 첫 번째 기도는 반드시 교역자나 회중의 인도자가 하며, 다른 두 기도는 회중의 구성원이 한다.

두 번째 요소는 전례적 상징 행위에 관한 것으로 **정의와 자비와 일치를 위한 약속** 다음에 이루어진다. 각각의 사람들을 위한 카드나 이름표 두 장씩을 준비해야 한다. 예식 동안, 참석자에게 정의, 자비, 또는 일치를 위한 구체적인 실천 방법에 대해 묵상하도록 요청한다. 그러면 참석자들은 두 장의 카드 각각에 자신의 구체적 약속 내용을 적을 것이다. 각자 옷속에 한 장의 카드를 부착한다. 두 번째 카드는 봉헌 때에 모아서 십자가 아래 놓는다. 이 예식을 마치며, 회중이 교회를 떠날 때 이 카드들을 각각 나누어 주어 각자 다른 이의 약속을 위해 기도할 수 있게 한다.

예식 순서

너희는 정의, 오직 정의만 따라야 한다

(신 16:18-20)

- + 인도자
- ◎ 회중
- 해설자

예배의 부름

- + 삼위일체 하나님께 경배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피조물에게 정의와 자비의 관을 씌워 주시니,
◎ 저희는 주님을 경배하러 왔나이다.

- + 예수 그리스도님, 십자가로 새 생명과 정의를 가져다 주셨으니,
◎ 저희는 주님을 경배하러 왔나이다.

- + 성령님, 저희가 의로운 행동을 하도록 저희 마음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니,
◎ 저희는 주님을 경배하러 왔나이다.

- +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친교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
◎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입당 노래 (지역에 맞게 선택)

소개말

- + 갈라진 공동체들에서 온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일치 기도를 위해 여기 모였습니다. 인도네시아 교회들이 선택한 올해 그리스도인 일치 기도 주간의 주제는 “너희는 정의, 오직 정의만 따라야 한다.”입니다. 분열과 갈등이 반복되는 상황을 고려할 때 이는 매우 중요한 주제입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그리스도 몸의 지체로서 정의를 따르고 실현하도록 부름 받은 우리의 소명을 상기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는 우리의 일치는 우리에게 힘을 불어넣어 주어, 우리가 정의를 위한 더 큰 투쟁에 참여하고 생명의 존엄을 증진하게 합니다.

찬가

참회의 기도

(참회의 기도의 응송은 노래로 할 수 있다.)

- +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바치는 예배가 하나님 마음에 드는 제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앞에서 우리가 지은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청합니다.

(교역자나 회중의 인도자가 낭독한다.)

1. 자애로우신 하나님,

당신의 양 떼를 돌보도록 저희를 뽑으셨나이다. 성자 예수님께서서는 의롭게 행동하는 법을 저희에게 가르쳐 주셨나이다. 저희가 직무를 수행할 때, 저희는 때때로 주님께서 저희에게 맡기신 이들에게 의롭지 못하게 행동했음을 알고 있나이다. 저희와 친한 사람이나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의 사람을 우선시하거나, 낮은 이들, 가난한 이들, 사회에서 가장 작은이들을 무시하였습니다. 또한 억눌린 사람들을 변호하는 것을 두려워하거나, 교

회 자원을 남용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일부 사람들이 교회에 등을 돌리는 원인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회중 가운데 한 사람이 낭독한다.)

2. 사랑이신 하나님,

당신께서는 저희를 당신 양 떼로 모으셨나이다. 성자 예수님께서서는 당신의 제자가 되는 표지로 서로 사랑하라고 가르쳐 주셨나이다 그러나 저희는 그분 사랑의 계명을 실천하지 못하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다른 교회들을 경쟁자로 여기고, 서로 불목하며 용서에 더디고, 사리사욕에만 집중하며, 형제자매의 요구를 무시하고, 저희와 관점이 다른 이들을 배척하였습니다. 이러한 저희의 태도는 서로를 갈라놓은 벽을 더욱 굳히고 있습니다.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다른 이가 낭독한다.)

3. 은혜로우신 하나님,

당신께서는 저희 공동의 집을, 모두에게 정의로운 곳으로 만들라는 사명을 저희에게 주셨나이다. 너그러운 사랑으로, 당신께서는 의로운 이에게나 불의한 자에게나 비를 내려 주시고, 예수님을 통해 차별 없이 사랑하는 법을 저희에게 가르쳐 주시나이다. 그러나 저희는 이웃을 존중하지 않고, 다양한 사회 매체를 통해 거짓을 퍼트리며, 사회의 화합을 깨트리는 데에 일조함으로써 이러한 가르침을 따르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저희의 이러한 행동은, 세상이 더 이상 모든 피조물에 대한 당신의 정의를 전할 수 없는 황무지가 되게 하는 위험을 초래하였습니다.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 전능하신 하나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주소서.

◎ 아멘.

찬가/노래/묵상음악

하나님 말씀의 선포

제1독서: 신명기 16:11-20

화답송 시편 82:1-8(낭독 또는 낭송)

- ◎ 일어나소서, 하나님. 세상을 심판하소서.
- 하나님은 신들의 모임에서 일어서시어 그 신들 가운데에서 심판하신다.
“너희는 언제까지 불의한 심판으로 악인들의 편을 들어주려 하느냐?”
- ◎ 일어나소서, 하나님. 세상을 심판하소서.
- 힘없는 이와 고아의 권리를 찾아 주고, 가난한 이, 불쌍한 이에게 정의를 베풀어라. 힘없는 이와 불쌍한 이를 도와주고, 악인들의 손아귀에서 구해 내어어라.”
- ◎ 일어나소서, 하나님. 세상을 심판하소서.
- 그들은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며 어둠 속을 걷고 있으니 세상 기초들이 모두 흔들린다.
- ◎ 일어나소서, 하나님. 세상을 심판하소서.
-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신이며 모두 지극히 높으신 분의 아들이다. 그러나 너희는 사람들처럼 죽으리라. 세상의 권력자들처럼 쓰러지리라.” 일어나소서, 하나님. 세상을 심판하소서. 당신은 모든 민족들의 주인이시웁니다.
- ◎ 일어나소서, 하나님. 세상을 심판하소서.

제2독서: 로마서 12:1-13

알렐루야 (노래)

복음: 누가복음 4:14-21

알렐루야 (노래) ◎

강론/설교

정의와 자비와 일치에 위한 약속

+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제자들의 일치를 위해 기도하십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생명을 내어 주심으로써 세상에 정의를 가져다주십니다.

1.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인 우리는 그분의 길을 함께 걸어가도록 부름받았습니다.
2. 그리스도의 부르심에 귀 기울입니다.

◎ 성령님, 저희가 행동으로 하나 되게 하소서.

1.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인 우리는 가진 것에 만족하며 돈에 대한 애착을 벗어나 살아가도록 부름받았습니다.
2. 탐욕의 굴레를 벗고 검소하게 살아갑니다.

◎ 성령님, 저희가 행동으로 하나 되게 하소서.

1.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인 우리는 잡혀간 이들과 온갖 폭력의 피해자들에게 해방을 선포하도록 부름받았습니다.
2. 존엄을 지키며 살아가도록 그들을 돕습니다.

◎ 성령님, 저희가 행동으로 하나 되게 하소서.

1.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인 우리는 이방인들을 환대하도록 부름받았습니다.
2. 서로를 더 존중하도록 노력합니다.

◎ 성령님, 저희가 행동으로 하나 되게 하소서.

1.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인 우리는 모든 피조물에게 기쁜 소식을 선포하도록 부름받았습니다.
2. 생명을 보호하고 하나님 창조의 아름다움을 보존합니다.

◎ 성령님, 저희가 행동으로 하나 되게 하소서.

- + 정의를 위해 협력하고자 하는 우리의 다짐을 구체화하기 위해 두 장의 카드에 여러분의 약속을 각각 적으십시오. 한 장은 소중히 간직하고, 다른 한 장은 모아서 봉헌하고자 합니다.

(약속을 적으면서 일치와 정의를 위한 노래를 부를 수 있다.)

봉헌

- +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정의를 실천하고 친절을 사랑하며 겸손하게 여러분의 하나님과 함께 걷는 것이 아닙니까?(미 6:8 참조) 우리는 정의의 실천을 다짐합니다.

(이때에 봉사자들이 두 번째 카드를 모아 십자가 앞으로 가져온다.)

- + 너그러우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모든 피조물을 향한 자애와 보살핌을 저희에게 보여 주셨나이다. 저희는 하나님의 사랑에 이끌려, 문화와 인종과 종교 배경과 무관하게 다른 이들을 진심으로 사랑함으로써 공정을 행하고자 하는 이 약속들을 봉헌하나이다. 이제 저희가 바치는 이 예물을 받으시어 교회의 일치를 위한 행동이 되게 하소서. 창조주 하나님과 함께 한 하나님으로서 영원히 살아 계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령의 힘으로 간구 하나이다.

◎ 아멘.

평화의 나눔

(인도자는 평화의 인사를 나누도록 회중을 초대하여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할 수 있도록 한다.)

니케아-콘스탄티노폴리스 신경

보편 지향 기도

- + 교회와 모든 이의 필요를 위해 공통된 우리 기도를 주님께 아뢰시다.
- 오 하나님, 생명의 창조주시여. 섬들과 대양들에서 당신을 경배하나이다.
오 하나님, 온 누리의 구세주시여. 산들과 계곡들에서 당신을 찬미하나이다.
오 하나님, 육신과 영혼의 위로자시여. 모든 민족의 언어로 당신께 감사드리나이다.
저희 명예와 희망을 짊어지고 당신 앞에 나왔나이다.
저희가 오늘 당신께 청하나이다.
- ◎ 하나님, 저희 기도를 들으시어 저희에게 사랑을 베푸소서.
- 불의의 한가운데서 살아가는 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저희가 그들의 목소리를 드높이고 그들의 희망을 복돋워 주게 하소서.
불의를 계속되게 하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호의로 저희 마음을 채우시어 저희가 자유와 평화의 일꾼이 되게 하소서.
정의를 위해 앞장서는 모든 사람과 단체를 위해 기도합니다.
저희가 당신 말씀에 따라 의롭게 행동하게 하소서.
저희가 오늘 당신께 청하나이다.
- ◎ 하나님, 저희 기도를 들으시어 저희에게 공정을 베푸소서.

- 교회의 가시적 일치를 위해 기도합니다.
저희가 하나 되게 해 달라고 하신 예수님의 기도를 실천하고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는 일에 협력하도록 저희를 이끄소서.
저희가 오늘 당신께 청하나이다.

- ◎ 하나님, 저희 기도를 들으시어 일치를 위한 열정을 저희에게 베푸소서.

- 저희가 이 세상에서 나누는 다양한 인종과 문화와 관습에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다양성 안에서 당신 사랑으로 일치를 이루게 하소서.
저희가 생명 수호를 위해 함께 일하고
이 세상을 온 인류를 위한 정의와 평화의 집으로 만들게 하소서.
저희가 오늘 당신께 청하나이다.

- ◎ 하나님, 저희 기도를 들으시어 저희에게 평화를 베푸소서.

주님의 기도(각자의 전통에 따라)

성가/노래

파견

- + 이 기도 모임을 떠나며 여러분은 약속 카드 한 장을 가져가게 됩니다.
카드에 적힌 약속을 위해 기도하도록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강복

- +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백성을 감싸 주시어
이들에게서 자애가 넘쳐흐르게 하소서.

하나님, 이 백성에게 용기의 불을 놓으시어
이들이 하나님의 정의와 평화의 일꾼이 되게 하소서.
하나님, 이 백성에게 겸손과 인내를 주시어
이들이 일치로 키워나가게 하소서.

◎ 아멘!

(봉사자들은 회중이 나갈 때 약속 카드를 나누어 준다.)

8일 간의 묵상과 기도

제1일

공정을 물처럼 흐르게 하여라(암 5:24)

암 5:22-25

눅 11:37-44

묵상

그리스도인들은 때로는 기도와 예배에 온전히 전념하지만, 가난하고 소외된 이들에게 기울이는 관심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때때로 우리는 교회 안에서 기도하면서도 같은 인간을 억압하거나 자연을 착취합니다. 인도네시아의 그리스도인들은, 신앙의 실천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는 한편 다른 믿음을 지닌 이들을 억압하고 심지어 폭력을 행사하기도 하는 사람들이 인도네시아에 있음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누가복음에서, 예수님께서서는 하나님께 드리는 참다운 예배의 외적 징표는 올바르게 행동하는 것임을 일깨우십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이러한 의무를 소홀히 하는 이들을 신랄하게 비난하십니다.

아모스 예언서에서, 하나님께서는 “공정을 물처럼 흐르게 하고 정의를 강물처럼 흐르게”(암 5:24) 하기 전까지는 정의를 무시하는 이들이 드리는 예배를 거부하십니다. 아모스 예언자는 예배와 정의의 실천은 전적으로 연결되어 있음을 강조합니다. 가난한 이들과 억압받는 이들의 울부짖음에 귀 기울이고자 함께 일할 때에 그리스도인들은 삼위일체 하나님과 더욱더 일치될 이루며 서로 더욱 일치하게 됩니다.

기도

과부와 고아와 이방인의 하나님,

하나님께서서는 저희에게 정의의 길을 보여 주셨나이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로서 정의를 실천하며 주님의 길을 따르도록 저희를 도와 주소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저희가 마음과 생각뿐 아니라 행동으로 함께 주님을 경배하게 하소서.

성령께서 저희를 도우시어 저희가 어디서건 정의를 위해 일하도록 인도해 주소서.

그리하여 저희 활동으로 많은 이가 힘을 얻을 수 있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제2일

너희는 말할 때에 ‘예’ 할 것은 ‘예’ 하고, ‘아니오’ 할 것은 ‘아니오’라고만 하여라(마 5:37)

엡 4:22-25

마 5:33-37

묵상

같은 인간을 향한 폭력은 신체적 폭행이나 강탈뿐 아니라 험담이나 악의적 소문에서도 발견됩니다. 소셜 미디어는 거짓이 수많은 청중에게 즉시 손쉽게 유포되게 조장해 왔습니다. 인도네시아의 그리스도인들은, 때로 이것이 어떻게 그리스도인 단체를 비롯한 종교 집단들에서 다른 종교 집단에 반대하여 유포하는 거짓말과 편견으로 이어지는지 알고 있습니다. 보복에 대한 두려움과 위협은 사람들이 진리의 옹호를 위해 나서지 못하게 만들고, 그들에게 두려움을 불러일으키려는 불공평하고 거짓된 말들 앞에서 침묵하게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담대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말할 때에 ‘예’ 할 것은 ‘예’ 하고, ‘아니오’ 할 것은 ‘아니오’라고만 하여라. 그 이상의 것은 악에서 나오는 것이다.” 거짓은 사람들 사이에, 그리고 교회들을 포함하여 단체들 사이에 우호 관계를 파괴합니다. 불의는 교회의 일치를 깨뜨립니다. 에베소 신자들에게 보낸 서간은 우리가 서로에게 속한 사람들임을 상기시킵니다. 이는 그리스도인들이 우정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서로 정직하고 책임 있게 대하라는 부름입니다. 서로 정직하고 책임 있게 대할 때, 악의 영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계실 것입니다.

기도

의로우신 하나님,

옳고 그름을 구별하도록 저희에게 지혜를 주소서.

정직이 저희 마음을 이끌고 저희 입술이 진실을 말하게 하소서.

다른 이들의 반대를 무릅쓰고라도 진실할 수 있는 용기를 저희에게 주소서.

저희가 거짓을 퍼뜨리지 않도록 지켜 주시고,

일치와 평화의 일꾼이 되게 하시며,

모든 이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제3일

주님은 너그러우시고 자비하신 분(시 145:8)

시 145:8-13

마 1:1-17

묵상

“주님은 모두에게 좋으신 분, 그 자비 당신의 모든 조물 위에 미치네.” 시편 저자는 이렇게 말하며, 하나님 사랑은 민족과 문화와 인종 그리고 종교의 장벽까지도 뛰어넘는다고 선포합니다.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의 족보에 대한 설명은 이러한 폭넓은 전망을 반영합니다. 고대 문화에서는 여성을 열등한 존재 또는 아버지나 남편의 소유물로 보는 반면에, 마태는 예수님의 조상으로 여성 네 명의 이름을 말합니다. 그중 룻과 라합, 이 두 명은 이민족이었습니다. 간음을 한 다윗 왕을 비롯하여 족보에 있는 예수님의 다른 조상 세 명은 그들의 죄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이들의 이름을 예수님의 족보에 올리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인류 역사의 한 부분으로 만드신 것은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 죄인과 의인 모두를 출신 배경과 상관없이 당신의 구원 계획에 포함하신다는 점을 증명합니다.

인도네시아는 17,000개가 넘는 섬과 서로 다른 1,340여 민족 집단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교회들도 흔히 민족별로 나뉘어 있습니다. 이러한 배타성 때문에 어떤 교회들은 자신들만이 진리의 유일한 소유자라고 여기며 그 결과 교회의 일치를 훼손하기에 이를 수 있습니다. 오늘날 전 세계적으로 인종적 종교적 광신주의가 고조되고 불관용의 정신이 커져가는 가운데, 그리스도인들은 시편 저자와 함께 “주님은 너그러우시고 자비하신 분”임을 모든 이에게 선포하면서, 모든 이를 그리안는 하나님의 사랑을 증언하는 데에 동참함으로써 인류 가족에 봉사할 수 있습니다.

기도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한 분이신 하나님,
모든 피조물 안에서 드러나는 크나큰 하나님 영광을 찬양하나이다.
차별받는 모든 이를 받아들이도록 저희에게 열린 마음을 주소서.
편견과 불의를 넘어 사랑을 키워가도록 저희를 도우소서.
모든 이가 지닌 고유성을 존중하도록 저희에게 은총을 베푸소서.
그리하여 저희가 다양성 가운데 일치를 경험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으로 기도 드리나이다. 아멘.

제4일

지금 가진 것으로 만족하십시오(히 13:5)

히 13:1-5

마 6:25-34

묵상

히브리인들에게 보낸 서간의 저자는 돈과 물질에 대한 지나친 욕심을 경고합니다. 우리가 가진 것이 충분치 않다고 생각하는 시류 앞에서 이 성경 구절은 하나님의 섭리를 일깨우며 하나님께서는 결코 피조물을 저버리지 않으시리라는 확신을 줍니다. 풍요로운 땅과 강과 바다를 통해 선사한 하나님께서는 모든 생명체를 지탱할 풍부한 식량과 깨끗한 물을 제공해 왔습니다. 그럼에도 많은 이들이 이러한 기초 필수품 부족에 시달립니다. 인간의 나약함과 탐욕은 종종 부패, 불의, 빈곤, 기아로 이어집니다. 다른 이를 돌보고 우리의 재화를 나누는 대신에 우리 자신, 또는 자국이나 자민족을 위해 돈과 식량과 천연 자원을 모으고 축적하려는 유혹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서는 물질이 우리 주요 관심사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가르치십니다. 오히려 우리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를 위해 마련해 주실 것을 믿으면서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와 그 가치를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최근 들어 인도네시아의 일부 교회들은 작은 시골 교회들에 다양한 재정적 인도적 교육적 지원을 해 왔습니다.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이런 소박하고 실제적인 사례를 통해 그들은 하나님께서 교회에 주시는 선물인 그리스도인들 사이의 일치를 증언하고 있습니다. 필요 이상의 돈을 벌거나 미래를 위해 자원을 쌓아 놓는 데에 몰두하지 않고 더욱 검소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 공동의 집인 지구를 좀 더 공정한 곳으로 만들어 나가게 할 수 있습니다.

기도

자비로우신 하나님,

풍성히 내려 주신 하나님의 선물에 감사하나이다.

모든 축복을 겸손하게 겸손과 감사로 받아들이도록

저희에게 은총을 베푸소서.

저희가 만족하는 가운데 필요한 이들에게 나누어주는 마음을 갖게 하소서.

그리하여 당신에게서 흘러나오는 사랑의 일치를 모든 이가 누릴 수 있게 하소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는

영원히 살아 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아멘.

제5일

가난한 이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고(눅 4:18)

암 8:4-8

눅 4:16-21

묵상

아모스 예언자는 이윤의 극대화를 위해 가난한 이들을 속이고 착취하는 장사꾼들을 비난했습니다. 또한 아모스 예언자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악행을 어떻게 지켜보고 계시는지 그리고 그 악행을 그분께서 결코 잊지 않으실 것임을 강조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불의에 희생되는 이들의 울부짖음을 귀여겨들으시고, 부당하게 대접하고 착취하는 이들을 결코 용서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소외와 착취와 불의가 만연하는 세계화된 세상 안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빈부 격차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경제적 성과는 민족과 나라와 공동체 간의 관계를 판가름하는 요인이 됩니다. 경제 문제가 흔히 그들 간의 긴장과 갈등을 유발합니다. 정의가 부재한다면 평화를 누리기 어렵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같은 세례에 힘입어, 가난한 이들과 힘없는 이들에게 말과 행동 모두로 기쁜 소식을 선포하는 예수님의 예언자적 사명에 동참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사명을 깨달을 때 주님의 성령께서도 우리와 함께하시어 정의를 위해 일하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품위는, 예수님께서 나사렛에서 선포하신 이사야 예언자의 그 말씀을 주변 사람들에게 선포하여 그 말씀이 날마다 성취될 수 있도록 말하고 행동하라고 우리를 다그칩니다.

기도

하나님,

권력을 향한 탐욕을 용서하여 주시고

남을 억압하려는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소서.

친교의 성령을 보내 주시어

저희가 이웃과 연대하며 살아가게 하소서.

또한 저희가 예수님과 함께

가난과 억압에서 해방시켜 주셨다 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데 동참하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비나이다. 아멘.

제6일

그 이름 만군의 주님이시다(렘 10:16)

렘 10:12-16

막 16:14-15

묵상

창조된 세상은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을 보여 줍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은 모든 피조물 안에서, 모든 피조물을 통해서 드러납니다. “그 이름 만군의 주님이십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는 심각한 전 지구적 생태 위기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이 위기는 자연계의 생존을 위협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피조물을 그 가용 범위를 넘어서 착취하고자 하는 탐욕에 빠져 왔습니다. 개발이라는 미명 아래 숲은 벌목되고 땅, 대기, 강, 바다가 오염으로 파괴되어, 농경이 불가능해지고 깨끗한 물을 얻을 수 없으며 동물들이 죽음으로 내몰립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뒤에 제자들에게 ‘모든 피조물에게’ 기쁜 소식을 선포하라는 사명을 주셨음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어떤 피조물도 모든 것을 새로워지게 하고자 하신 하나님의 계획 밖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착취의 시류를 벗어나, 진가를 발견하고 우리가 피조물과 화해하는 태도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인도네시아와 여러 각지에서 서로 다른 믿음을 지닌 사람들이 펼치는 운동들은 그리스도인들이 친환경적인 교회들을 발전시키고 환경의 남용에 반대하는 입장을 갖도록 격려합니다. 이로써 그리스도인들은 일치를 이루어 창조주 하나님을 증언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만물을 지으신 유일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다른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지상에 있는 우리 공동의 집을 지키는 데 동참할 때에, 우리는 단지 환경보호 운동에 참여하는 것만이 아니라, 치유하고 회복하는

하나님 사랑의 기쁜 소식을 모든 피조물에게 선포하라는 주님의 명령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기도

사랑이신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물이 생겨났나이다.

하나님의 영광과 아름다움과 자애를 드러내는 온 세상을

저희에게 주심에 감사드리나이다.

이 땅을 소중히 아끼며 걸어 나갈 지혜를 저희에게 허락하시어

모든 피조물에게 하나님의 기쁜 소식을 함께 전하는 예언자가 되게 하소서.

아멘.

제7일

여인아, 네 믿음이 참으로 크구나!(마 15:28)

삼상 1:13-17

마 15:21-28

묵상

엘리는 한나의 깊고 절실한 기도를 오해하고 그 탄원을 술에 취한 헛소리라고 묵살하며 그녀를 나무랐다. 그러나 자신을 “좋지 않은 여자”로 여기지 말아 달라는 한나의 대답에 엘리는 마음을 누그러뜨리고 복을 빌어주며 그녀를 돌려보냈다. 마찬가지로, 가나안 여자가 예수님을 찾아와 자신의 딸을 낫게 해 달라고 청하였을 때, 처음에 예수님께서서는 오직 당신 백성만을 위해서 왔다고 말씀하시며 거절하셨다. 그러나 끈질기게 청하고 요구하는 가나안 여자의 큰 믿음을 인정하신 예수님께서서는 마침내 그녀의 간청을 들어주셨다. 이 두 경우 모두에서, 처음에는 소외되고 관심을 기울일 가치도 없게 여겨지던 한 여인의 말이, 마음을 누그러뜨리고 치유와 완성을 가져오는 선견지명이 있는 말임이 드러났다

여성의 목소리는 오늘날에도 계속해서 무시와 외면을 받고 있다. 실제로 우리 교회 안에서조차 흔히 우리는 여성을 비하하는 문화에 휩쓸리고 있다. 그리스도인들이 이러한 부분에서 자신의 잘못을 깨닫게 될 때, 여성과 어린이들을 강제 납치하여 다른 나라에 팔아넘기는 짓이 얼마나 끔찍한 폭력인지를 더욱 확실히 깨닫게 된다. 여성과 어린이 그리고 다른 많은 이주 노동자들은 흔히 비인간적 대우를 받으며 가장 기본적인 인권마저 빼앗긴다. 최근 인도네시아 교회들은 인신매매와 아동 성폭력의 척결을 위한 공동의 행동을 취하였다. 인도네시아 일부 지역에서 그 희생자의 수가 날로 늘어나고 있기에, 그들의 노력과 아울러 타 교인들의 노력이 더욱더 절실히 필요하다.

그리스도인들이 기도와 성경 공부 안에서 일치하여 진실로 하나님의 음성을 경청할 때, 하나님께서 오늘날에도 사회에서 가장 학대받는 이들의 부르짖음을 통해 말씀하신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함께 듣는 바로 그때에 그 말씀에 감도되어 인신매매와 다른 악의 고통에 대항하는 공동의 행동으로 나아가게 된다.

기도

너그러우신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인간 존엄의 원천이시나이다.
하나님의 은총과 권능으로
한나의 딸이 사제 엘리의 마음을 바꾸었나이다.
주님의 자애와 권능으로
가나안 여인의 딸이 예수님 마음을 움직여 여인의 딸이 나왔나이다.
교회의 일치를 증언하고자 노력하는 저희에게
용기를 주시어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폭력을 거부하고
성령의 은사를 받아 누리게 하시어
여성이 교회에 봉사하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제8일

주님은 나의 빛, 나의 구원(시 27:1)

시 27:1-4

요 8:12-20

묵상

이번 그리스도인 일치 기도 주간의 8일 동안, 현대 세계가 직면하고 있는 여러 어려운 상황들, 곧 탐욕, 폭력, 배척, 착취, 빈곤, 환경 오염, 기아, 인신매매 등에 대하여 날마다 묵상하였다. 인도네시아 교회들은 이러한 문제들을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직면한 도전 과제로 인식하고 있다. 인도네시아 교회들은 이러한 죄들의 일부가 자신들의 교회의 삶에 오점을 남기고 일치를 저해하며 세상을 향한 그들 증언의 힘을 약화시킨다는 것을 깨닫고 고백한다. 이와 동시에 그들은 많은 교회들이 함께 모여서 그리스도 안의 일치를 증언한 많은 고무적인 사례들도 알고 있다.²⁾ 세계 여러 지역의 그리스도인들은 각자 상황에 따라 다른 여러 사례들을 들 수 있다.

나날이 해를 거듭할수록, 특히 그리스도인 일치 기도 주간 동안, 그리스도인들은 함께 모여 공동의 기도를 바치며 공통된 세례의 신앙을 고백하고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일치를 이룰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한다. 이렇게 하여 거룩하신 삼위일체는 모든 일치의 원천이시며, 당신을 따르는 이들에게 생명의 빛을 약속하신 예수님께서서는 세상의 빛이심을 깨닫게 된다. 세상의 수많은 불의가 자주 그들을 슬프게 하거나 화나게 한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희망을 잃지 않고 행동에 옮긴다. 주님께서 그들의 빛이고 구원이며 그들 삶의 산성이시기에 그리스도인들은 두려워하지 않는다.

2) 인도네시아의 교회 일치 상황 참조.

기도

저희의 버팀목이신 하나님,

저희에게 자애로운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시련의 때에 저희를 지켜주시고

어둠의 때에 당신의 빛을 비추시니 찬미하나이다.

저희 삶을 변화시키시어 저희가 다른 이에게 축복이 되게 하소서.

저희가 다양성 가운데 일치를 이루며 당신의 친교에 대한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소서.

한 분이신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이제와 영원히 찬미 받으소서. 아멘.

인도네시아의 교회 일치 상황

서문

인도네시아는 다원화 사회, 곧 다양한 부족, 언어, 문화, 종교의 사람들의 터전이다. 2억 6,500만 명 가운데 12%가 가톨릭과 개신교 신자이다. 그리스도교는 7세기에 네스토리우스파 선교사들이 북수마트라에 전파함으로써 처음 인도네시아에 들어왔다. 그러나 지속되지 않았다. 그 다음에 16세기 초, 포르투갈 상인들을 따라온 가톨릭 선교사들이 복음을 전파하였다. 이들 가운데는 1546-1547년에 말루쿠 군도에서 활동한 예수회의 프란치스코 하비에르 성인도 있다. 1534년 할마헤라 섬의 마무야 지역에서 처음으로 세례를 베풀었다. 1605년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Verenigde Oost-Indische Compagnie, VOC)라 불리는 무역 회사의 깃발 아래 건너온 네덜란드인들은 포르투갈 사람들을 인도네시아에서 몰아냈다. 이러한 네덜란드 상인의 도착과 함께, 개신교가 인도네시아에 소개되었고 가톨릭 신자는 개신교로 개종하도록 강요당했다.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는 본래 인도네시아 동쪽 지역에서 주로 생산되는 향신료를 얻는데 관심이 있었다. 이후에도,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는 또한 네덜란드의 식민 정부를 대표하고 17세기 네덜란드 교회인 칼뱅교를 소개하였다. 개혁 교회는 공식 국교였으며 이에 따르는 특권을 누렸다.

이후에 인도네시아로 온 선교사들은 대부분 네덜란드와 독일 출신으로 특정 부족을 위해서만 활동하였다. 그 결과, 부족의 경계에 따라 그리스도인들도 분열되는 경향이 있다. 대부분의 그리스도교 공동체는 예배에서 부족의 언어를 사용하였지만 점차적으로 인도네시아 공용어인 바하사 인도네시아어도 사용하였다. 20세기에 인도네시아에 복음주의 교회 부흥 운동과 은사 운동이 도입되었다. 또 최근에는 정교회도 인도네시아에 들어왔다. 이로써, 현재 인도네시아의 교회들에는 가톨릭, 루터교, 개혁 교회, 오순절 교회, 복음주의 교회, 은사주의 교회, 침례교,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회, 구세군, 정교회를 포함한 다양한 그리스도교 전통들

이 혼재한다.

이러한 교회들은 교회 일치와 관련된 사안은 물론 지방과 지역과 국가 차원에서 사회적으로 공통된 관심사에 대해 다양한 기회를 통해 다양한 방식으로 함께 일하고 있다. 예컨대, 자카르타의 케바요란 지역에 사는 다양한 그리스도 공동체의 여성들은 협력하여 베각(락샤, 인력거) 기사, 저소득 가정과 노숙자에게 매우 저렴한 점심 도시락을 제공한다. 그들은 정기적으로 친목 모임을 가지고 다양한 곳의 다른 여성 단체와 함께, 해마다 세계 기도의 날에 공동체의 평화와 정의를 위해 기도한다.

인도네시아 교회 연합

‘인도네시아 교회 연합’(Persekutuan Gereja-gereja di Indonesia, PGI)은 인도네시아 개신교 연합이다. 이 연합은 인도네시아 교회의 일치를 목표로 1950년 5월 25일 ‘인도네시아 교회 협의회’(Dewan Gereja-gereja di Indonesia, DGI)로 창립되었다. 제2차 세계대전 이전부터, 교회 협의회를 만들고자 하는 구상은 특히 인도네시아의 다양한 선교 기관의 활동을 조직하는 과제와 함께 있어 왔다. 1945년 국가의 독립에 힘입어, 인도네시아의 많은 지역에서 교회 일치를 표현하여야 할 필요성을 느꼈다. 1980년 암본에서 열린 제10차 총회에서 인도네시아 교회 협의회는 그와 명칭을 인도네시아 교회 연합으로 바꿨다. 몇 년간 함께 일한 협의회 회원들은 친목을 더욱 돈독히 하고 조직적 문제를 넘어서 일치된 교회로서 공동 헌신의 길로 나아가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또한 그들은 교회의 일치를 증진하고 다원화된 인도네시아 사회 상황에서 복음을 선포하기 위해 구체적으로 협력하여야 할 필요를 깨달았다.

인도네시아 교회 연합은 1980년 총회에서 ‘교회 일치에 관한 5가지 문서’를 발표하였다. 그것은 다음과 같다. (1) 인도네시아 교회의 공동 소명, (2) 그리스도 신앙의 공통된 이해, (3) 인도네시아 교회들 사이에 공통된 인식과 포용, (4) 내규, (5) 인도네시아 교회들의 신학과 자원과 재정의 자립을 지향하며. 이러한 문서들은, 교회의 쇄신, 발전, 일치를 위한 구체적 프로그램으로 나타나는 교회 일치를 향한 공동의 노력에 비추어 회원 교회들의 신학적, 교회론적 이해를 반영한다. 이 문서들은 5년마다 열리는 인도네시아 교회 연합 총회에서 늘 다시 검토된다. 2000년 제13차 인도네시아 교회 연합 총회는 이 다섯 문서를 하나의 문서

로 통합하기로 결정하고 그 문서를 ‘교회 일치 문서’(Dokumen Kessan Gereja, DKG)라 명명하였다. 이 문서는 인도네시아 교회 연합 회원들이 인도네시아에서 교회 일치와 그리스도인 공동 증언을 위해 협력할 때에 주요 기준이 될 것이다. 현재 인도네시아 교회 연합에는 오순절 교회, 복음주의 교회, 은사주의 교회를 포함한 89개의 회원 교회가 있다. 또한 더욱 소규모의 지역별 교회를 포함한 관구별 인도네시아 교회 연합들이 있다.

때때로 인도네시아 교회 연합은 종교 자유의 이행과 정의와 평화의 수호 특히 소외된 이들의 보호를 포함한 사회의 중요한 특정 사안에 대하여 관련된 공식 성명서를 발표하거나 인도네시아 정부에 서한을 보낸다. 또한, 종교의 자유, 부패, 인권 침해, 폭력, 아동 보호 등과 같은 인도네시아의 주요 사안에 대하여 회원 교회에 사목 교서를 보낸다. 2014년 인도네시아 교회 연합 제16차 총회가 다음과 같은 주제로 열렸다. “땅속 깊은 물에서 저를 다시 끌어 올리셨습니다(시 71:20): 인도네시아의 모든 어린이들과 연대하며, 빈곤, 불의, 급진주의, 환경 파괴를 극복하기 위해 우리는 함께 판차실라(Pancasila)의 가치를 이행한다.” 이 주제는 특별히 2014-2019년 동안 인도네시아 교회 연합과 그 회원들의 활동에 대한 지침 역할을 하였다. 앞서 언급한, 다르면서도 서로 연관된 네 가지 문제들 [빈곤, 불의, 급진주의, 환경 파괴]의 근원은 탐욕이라는 확신을 인도네시아 교회 연합 회원 교회들은 공유하였다. 이에 따라 인도네시아 교회 연합은 이른바 ‘절제의 영성’(spiritualitas keugaharian)을 증진하고 있다.

인도네시아의 가톨릭교회와 주교회의

16세기에 거둔 초기 선교의 성공에도, 1807년 유럽의 정치적 사건들의 여파로 다시 가톨릭 예배의 자유가 허용되기까지, 인도네시아 가톨릭 교회는 네덜란드의 통치 아래 억압을 받았다. 또한 19세기 후반에서 20세기에 새로운 선교 노력으로 학교들과 신학교들과 새로운 예배 공동체들이 세워지기 전까지는, 로마 가톨릭 교회가 제한된 지역에서만 존재하였다. 최초의 인도네시아 방인 사제가 1920년대에 서품되었고, 이들 사제 가운데 알베르토 소에기자프라나타(Albertus Soegijapranata) 신부가 1940년에 첫 원주민 출신 주교가 되었다. 그는 인도네시아 독립을 지지하여 국가적 영웅으로 칭송받았으며, “100% 가톨릭, 100% 인도네시아인”이라는 그의 구호가 기억된다.

인도네시아 가톨릭 주교회의는 1920년대에 최초로 형성되었으며 이후 1950년대 새로운 독립국의 모든 지역 출신 주교를 포함하여 다시 구성되었다. 1987년 이후부터, ‘인도 주교회의’(Konferensi Wligeraja Indonesia, KWI)가 그 공식 명칭이 된다. 인도네시아 주교회의의 오랜 역사 덕분에 인도네시아 주교들은 제2차 바티칸 공의회가 열리는 동안(1962-1965년)에 주요 발언들을 하였는데, 특별히 계시에 관한 공의회 문헌과 관련하여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이러한 발언 가운데, 티모르 엔데 대교구의 가브리엘 마넵(Gabriel Manek) 대주교는 처음에 제안된 ‘계시에 관한 교의 헌장’ 초안 “*De fontibus*”에 대해 교회와 다른 그리스도인들과의 대화에 장애가 될 수 있다는 이유로 반대하였다. 그리고 1962년 이래로, 인도네시아 가톨릭 주교들이 교회 일치 계획에 헌신해왔음을 알 수 있다.

인도네시아 교회 연합과 인도네시아 주교회의의 협력

오랜 세월동안 인도네시아 교회 연합과 인도네시아 주교회의는 특별히 국가적 공동 관심사와 관련해 긴밀히 협력하였다. 1980년부터 인도네시아 교회 연합과 인도네시아 주교회의는 주로 성탄 복음에 비추어 국가적 사안을 언급하는 공동 성탄 메시지를 매년 발표하고 있다. 이 메시지는 가톨릭과 개신교 모두의 본당들에서 낭독된다. 점차 인도네시아 교회 연합과 인도네시아 주교회의가 해마다 발표한 성탄 메시지의 주제는 국가적 주제로 채택되었다. 이 두 기관들이 정기적으로 언급하는 사안 가운데에 하나는 인도네시아 헌법이 보장한 바와 같이 모든 시민의 종교적 자유를 이행하는 것과 관련이 있다. 필요할 때면, 인도네시아 교회 연합과 인도네시아 주교회의는 공동체의 정의와 평화뿐만 아니라 국민의 안녕을 위협하는 사회적 문제의 발생과 관련하여 공식 성명서를 발표한다.

인도네시아 교회는 다른 신앙을 가진 사람들과 굳건한 관계를 맺어야 하는 중요성을 알고 있다. 인도네시아 교회 연합과 인도네시아 주교회의는 종교간 대화와 협력에 깊이 관여한다. 이 둘은 인도네시아의 다양한 종교 기관의 공동 협력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인도네시아는 6개의 종교, 곧 이슬람교, 개신교, 천주교, 불교, 힌두교, 유교를 공식 종교로 인정한다. 이러한 종교의 지도자들은 때때로 만나 일부 중요한 문제에 대해 논의하고 종종 특별한 사안에 대해 공동 성명을 발표한다. 지역적 차원에서, 인도네시아 교회 연합과 인도네시아 주교회의와 관련된 많은 신자들과 본당들도 종교간 대화와 구체적 사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인도네시아 크리스천 포럼

2007년 케냐 리무르에서 개최된 글로벌 크리스천 포럼(Global Christian Forum, GCF)의 첫 모임에 참석한 인도네시아 참가자들은 감화되어 인도네시아의 다양한 그리스도 전통 사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협력을 더욱 굳건히 하였다. 제2차 글로벌 크리스천 포럼은 2012년 인도네시아 마나도에서 열렸다. 이 행사 동안 인도네시아에서 다양한 전통을 대표하는 그리스도교 지도자들이 'Forum Umat Kristen Indonesia(FUKRI)'라 불리는 인도네시아 크리스천 포럼을 개최하였다. 이 포럼의 회원들은 2013년 자카르타의 스나얀 경기장에서 열린 그리스도인 일치 행사 거행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 이는 대한민국 부산에서 열린 세계교회협의회 제10차 총회의 성공을 기원하는 특별한 행사였다. 이 모임에는 세계교회협의회 총무 올라프 픽세 트베이트(Rev. Dr. Olav Fykse Tveit) 목사와 부산에서 개최되는 제10차 세계교회협의회 총회 지역 조직 위원회가 참석하였다. 이때부터 인도네시아 크리스천 포럼의 회원은 인도네시아 교회 연합, 인도네시아 주교회의, 인도네시아 복음주의 교회와 기관 협회(Fellowship of the Evangelical Churches and Institutions in Indonesia, PGLII), 인도네시아 오순절 교회 협회(Fellowship of Pentecostal Churches in Indonesia, PGPI), 인도네시아 침례교 협회(Fellowship of Baptist Churches in Indonesia), 구세군,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회, 정교회로 구성되었다. 이들은 매달 정기적으로 만난다. 처음에는 단지 형제애를 다지고자 모임이 이루어졌지만, 갈수록 다원화되고 빠르게 변화하는 인도네시아 사회 안에서 그리스도인의 자리에 초점을 맞춘 심도 있는 토론이 이루어졌다. 전국 기도 네트워크(National Prayer Network)와 함께, 인도네시아 크리스천 포럼은 사회와 국가 생활에서 마주하는 도전 과제를 초점으로 기도 행사를 조직하였다. 또한 인도네시아 크리스천 포럼은 종교 개혁 500주년을 공동으로 기념하였다. 최근 인도네시아 크리스천 포럼은 세계교회협의회와 교황청 그리스도인일치촉진평의회와 세계복음연맹이 “다종교 세계에서 하는 그리스도인 증언 행동 권고”라는 제목으로 발표한 문서에 대해 논의하였다. 인도네시아 크리스천 포럼 회원들은 이 교회 일치 문서를 다원화된 사회 상황 안에서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인도네시아 교회를 위한 소중한 안내로서 감사히 여겼다. 인도네시아 크리스천 포럼은 후속 연구를 위해서 이 문서를 각 신도들과 공유하기로 하였다.

(*이 문서는 2019년 그리스도인 일치 기도 주간 자료 초안 작성을 위하여 모인 인도네시아 교회 일치 팀의 단독 권한과 책임으로 작성되었다.)

그리스도인 일치 기도 주간의 주제 목록

1968-2019년

세계교회협의회 신양직제위원회와 교황청 그리스도인일치촉진평의회는 1968년부터 공식적으로 기도 주간 자료를 공동으로 준비하여 사용하기 시작하였다.

1968년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라”(엡 1:14)

1969년 “자유롭게 되라고 부르심을 받았습니다”(갈 5:13)
(이탈리아 로마에서 준비모임)

1970년 “우리는 하나님의 협력자입니다”(고전 3:9)
(독일 니더알트아이흐 수도원에서 준비모임)

1971년 “성령의 친교”(고후 13:13)
(이탈리아 바리에서 준비모임)

1972년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요한 13:34)
(스위스 제네바에서 준비모임)

1973년 “주님, 저희에게도 기도하는 것을 가르쳐 주십시오”(눅 11:1)
(스페인 몽세라 수도원에서 준비모임)

1974년 “예수 그리스도는 주님이시라고 모두 고백합니다”(빌 2:1~13)
(스위스 제네바에서 준비모임)

1975년 “만물을 그리스도 안에서 한데 모으는 하나님의 계획”(엡 1:3~10)
(오스트레일리아 단체가 초안 준비, 스위스 제네바에서 준비모임)

1976년 “우리도 그분처럼 될 것입니다”(요일 3:2) 또는 “우리는 우리 자신이 되도록 부름받았습니다”
(카리브 교회 회의가 초안 준비, 이탈리아 로마에서 준비모임)

1977년 “희망을 갖고 함께 인내하십시오”(롬 5:1~5)
(내전 중인 레바논에서 초안 준비, 제네바에서 준비모임)

1978년 “이제 더 이상 이방인이 아닙니다”(엡 2:13~22)
(영국 맨체스터에서 교회 일치 단체가 초안 준비)

2019년 그리스도인 일치 기도 주간

- 1979년 “서로를 위하여 봉사하십시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벤전 4:7~11)
(아르헨티나에서 초안 준비, 스위스 제네바에서 준비모임)
- 1980년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소서”(마 6:10)
(구 동독의 베를린에서 교회 일치 단체가 초안 준비,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준비모임)
- 1981년 “하나이신 성령과 여러 은사, 하나인 몸”(고전 12:3~13)
(미국 그레이무어에 있는 속죄의 프란치스코 수도회 신부들이 초안 준비, 스위스 제네바에서 준비모임)
- 1982년 “행복합니다, 당신의 집에 사는 이들!”(시 84[83]편)
(케냐에서 초안 준비,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준비모임)
- 1983년 “예수 그리스도, 세상의 생명”(요일 1:1~4)
(아일랜드 교회 일치 단체가 초안 준비, 스위스 셸리니[보세]에서 준비모임)
- 1984년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가 되도록 부름 받았습시다”(고전 2:2; 골 1:20)
(이탈리아 베니스에서 준비모임)
- 1985년 “하나님께서서는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습니다”(엡 2:4~7)
(자메이카에서 초안 준비, 스위스 그랑샹에서 준비모임)
- 1986년 “너희는 나의 증인이 될 것이다”(행 1:6~8)
(유고슬라비아[슬로베니아]에서 초안 준비, 유고슬라비아에서 준비모임)
- 1987년 “그리스도 안에서 일치된 새로운 피조물”(고후 5:17~6:4)
(영국에서 초안 준비, 프랑스 떼제에서 준비모임)
- 1988년 “하나님의 사랑은 두려움을 몰아냅니다”(요일 4:18)
(이탈리아에서 초안 준비, 이탈리아 피네롤로에서 준비모임)
- 1989년 “공동체 건설, 그리스도 안에 한 몸”(롬 12:5~6)
(캐나다에서 초안 준비, 영국 웨일리 브리지에서 준비모임)
- 1990년 “그들도 모두 하나가 되게 해 주십시오.그리하여 세상이 믿게 하십시오”(요 17장)
(스페인에서 초안 준비,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준비모임)
- 1991년 “주님을 찬양하여라, 모든 민족들아”(시 117[116]편; 롬 15:5~13)
(독일에서 초안 준비, 독일 풀다 지역의 로텐부르크에서 준비모임)
- 1992년 “내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겠다.그러므로 가라”(마 28:16~20)
(벨기에에서 초안 준비, 벨기에 브뤼주에서 준비모임)
- 1993년 “그리스도인 일치를 위하여 성령의 열매를 맺으십시오”(갈 5:22~23)
([현재 콩고 민주 공화국인] 구 자이르에서 초안 준비, 스위스 취리히 근교에서 준비모임)

- 1994년 “한마음 한뜻이 되도록 부름을 받은 하나님의 가족”(행 4:23~37)
(아일랜드에서 초안 준비, 아일랜드 더블린에서 준비모임)
- 1995년 “코이노니아, 하나님과 함께 또 서로서로 이루는 친교”(요 15:1~17)
(신앙직제위원회에서 초안 준비, 영국 브리스틀에서 준비모임)
- 1996년 “보라. 내가 문 앞에 서서 문을 두드리고 있다”(계 3:14~22)
(포르투갈에서 초안 준비, 포르투갈 리스본에서 준비모임)
- 1997년 “우리는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여러분에게 빚니다. 하나님과 화해하십시오”(고후 5:20)
(북유럽 교회 일치 위원회에서 초안 준비,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준비모임)
- 1998년 “성령께서도 나약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롬 8:14~27)
(프랑스에서 초안 준비, 프랑스 파리에서 준비모임)
- 1999년 “하나님께서서 사람들과 함께 거처하시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다”(계 21:1~7)
(말레이시아에서 초안 준비, 이탈리아 보세 수도원에서 준비모임)
- 2000년 “하나님께서서 찬미받으시기를 빚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복을 우리에게 내리셨 습니다”(엡 1:3~14)
(중동에서 초안 준비, 이탈리아 베르나 수도원에서 준비모임)
- 2001년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요 14:1~6)
(루마니아에서 초안 준비, 루마니아 볼칸에서 준비모임)
- 2002년 “정녕 주님께는 생명의 샘이 있나이다”(시 36[35]:6~10)
(유럽주교회의협의회와 유럽교회협의회에서 초안 준비, 독일 아우쿠스부르크 근교에서 준비모임)
- 2003년 “우리는 이 보물을 질그릇 속에 지니고 있습니다”(고후 4:4~18)
(아르헨티나에서 초안 준비, 스페인 로스 루비오스에서 준비모임)
- 2004년 “내 평화를 너희에게 준다”(요 14:23~31; 14:27)
(시리아 알레포에서 초안 준비, 시칠리아 팔레르모에서 준비모임)
- 2005년 “교회의 유일한 기초이신 그리스도”(고전 3:1~23)
(슬로바키아에서 초안 준비, 슬로바키아 피에스타니에서 준비모임)
- 2006년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이라도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함께 있다”(마 18:20)
(아일랜드에서 초안 준비, 아일랜드 킬대어 주 프러스페러스에서 준비모임)
- 2007년 “귀족은 듣게 하시고 말 못하는 이들은 말하게 하시는구나”(막 7:31~37)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초안 준비, 프랑스 파베르주에서 준비모임)

2019년 그리스도인 일치 기도 주간

- 2008년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살전 5:13~18)
(미국에서 초안 준비, 미국 개리슨 시 그레이모어에서 준비모임)
- 2009년 “네 손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여라”(겔 37:15~28)
(한국에서 초안 준비, 프랑스 마르세유에서 준비모임)
- 2010년 “너희는 이 일의 증인이다”(눅 24:48)
(스코틀랜드에서 초안 준비, 스코틀랜드 글래스고에서 준비모임)
- 2011년 “사도들의 가르침을 듣고 친교를 이루며 빵을 나누고 기도하는 일에서 하나 되기”(행 2:42 참조)
(예루살렘 그리스도인 지도자들이 초안 준비, 시리아 사이드나야의 크리스토포루스 수도원에서 준비모임)
- 2012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로 우리 모두 변화될 것입니다”(고전 15:51~58참조)
(폴란드에서 초안 준비-폴란드 바르샤바에서 준비모임)
- 2013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바라시는가”(미 6:6~8참조)
(인도에서 초안 준비-인도 방갈로르에서 준비모임)
- 2014년 그리스도께서 갈라지셨다는 말입니까?(고전 1:1~17참조)
(캐나다에서 초안 준비-캐나다 몬트리올에서 준비모임)
- 2015년 “예수님께서 ‘나에게 마실 물을 줘 다오.’ 하고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다”(요한 4,7)
(브라질에서 초안 준비, 브라질 상파울루에서 준비 모임)
- 2016년 주님의 놀라운 일을 선포하도록 부름 받았습니다 (벧전 2:9)
(라트비아에서 초안 준비, 라트비아 리가에서 준비 모임)
- 2017년 화해,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다그칩니다 (고후 5:14-20 참조)
(독일에서 초안 준비, 독일 비텐베르크에서 준비 모임)
- 2018년 권능으로 영광을 드러내신 주님의 오른손 (출 15:6)
(카리브 지역에서 초안 준비, 바하마 나소에서 준비 모임)
- 2019년 너희는 정의, 오직 정의만 따라야 한다 (신 16:18-20)
(인도네시아에서 초안 준비 -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준비 모임)

그리스도인 일치 기도 주간의 역사에서 중요한 날들

- 1740년경 스코틀랜드에서 북미 사람들과 연계하여 열린 성령 강림 운동. 이들의 신앙 부흥 운동 메시지에는 모든 교회를 위하여 모든 교회와 함께 바치는 기도들이 포함됨.
- 1820년 제임스 홀데인 스튜어트 신부가 '성령 강림을 위한 그리스도인 총연맹의 제안' 출판
- 1840년 로마 가톨릭으로 개종한 이냐시우스 스펜서 신부가 '일치를 위한 합동 기도' 제안
- 1867년 제1차 램버스 성공회 주교회의가 그 결의안 전문(前文)에서 일치 기도 강조
- 1894년 레오 13세 교황이 성령 강림 대축일을 전후하여 일치 기도 주간 실천 장려
- 1908년 폴 왓슨 신부가 제안한 '교회 일치 기도 주간' 준수
- 1926년 신앙직제운동이 '그리스도인 일치 기도 주간을 위한 제안'을 발표하기 시작
- 1935년 프랑스의 폴 쿠튀리에 신부가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방식으로 그분께서 원하시는 일치'를 위한 기도를 바탕으로 '세계 그리스도인 일치 기도 주간'을 주창
- 1958년 교회일치위원회(프랑스 리옹)와 세계교회협의회(신앙직제위원회)가 협력하여 일치 기도 주간 자료 준비 시작
- 1964년 예루살렘에서 바울 6세 교황과 아테나고라스 1세 총대주교가 "이 사람들이 모두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요한 17:21)라는 예수님의 기도를 함께 바침.
- 1964년 제2차 바티칸 공의회(의 일치 운동에 관한 교령 「일치의 재건」(Unitatis Redintegratio)은 기도야말로 교회 일치 운동의 혼이라고 강조하며 일치 기도 주간의 준수를 장려
- 1966년 세계교회협의회(신앙직제위원회와 그리스도인일치사무국(현재의 교황청 그리스도인일치촉진평의회)이 공식으로 일치 기도 주간 자료의 공동 준비 시작
- 1968년 신앙직제위원회와 그리스도인일치사무국이 공동으로 준비한 일치기도 주간 자료를 최초로 공식 사용
- 1975년 지역 교회 일치 운동 단체가 준비한 초안을 바탕으로 한 일치 기도 주간 자료를 최초로 사용
- 1988년 말레이시아 주요 그리스도교 단체들을 연결하는 말레이시아 그리스도교 연합의 창립 예식에서 일치 기도 주간 자료 사용
- 1994년 YMCA와 YWCA의 대표가 포함된 국제 모임이 1996년 자료 준비
- 2004년 세계교회협의회(신앙직제위원회와 교황청 그리스도인일치촉진평의회가 그리스도인 일치 기도 주간의 자료를 같은 형식으로 공동으로 발표하고 출판하기로 합의
- 2008년 그리스도인 일치 기도 주간 100주년 기념
(‘그리스도인 일치 기도 주간’의 전신인 ‘교회 일치 기도 주간’이 1908년에 처음으로 거행되었다.)

〈한국 그리스도인 일치아카데미〉(5기)

수강생 모집

- 일 시: 2019년 4월 중 개강, 매주 목요일 오후 7시-9시(총10강)
- 장 소: 미정
- 수강비: 10만원
- 대 상: 평신도 천주교인 25명, 개신교인 25명(선착순, 수도자목회자 가능)
- 문 의: 한국 그리스도교 신앙과 직제협의회 02-743-4471

강사(*변경 가능성 있음)

송용민 신부	독일 베텔신학대학, 감리교신학대학교 교수
손정명 수녀	로마 안토니아눔 신학대학, 수원가톨릭신학대학 하상신학원 교수
안교성 목사	영국 캠브리지대학교, 장로회신학대학교 교수
서원모 목사	미국 프린스턴신학대학원, 장로회신학대학교 교수
양현혜 목사	일본 도쿄대학교, 이화여자대학교 교수
전 철 목사	독일 하이델베르크대학교, 한신대학교 교수
신정훈 신부	독일 뮌헨신학대학교, 가톨릭대학교 교수
박준양 신부	로마 그레고리안대학교, 가톨릭대학교 교수
박태식 신부	독일 괴팅엔대학교, 성공회대학교 교수
임종훈 신부	서울대학교, 정교회출판사 편집장
조기연 목사	미국 드루대학교, 서울신학대학교 교수
장동훈 신부	로마 그레고리안대학교, 인천가톨릭대학교 교수
장운재 목사	미국 유니온신학대학교, 이화여자대학교 교수
장영주 사관	감리교 신학대학교, 구세군사관대학원대학교 교수
정경일 박사	미국 유니온신학대학교, 새길기독사회문화원 원장

커리큘럼 (*변경 가능성 있음)

강의	주제와 내용
1강	(개강)오리엔테이션, 나는 왜 그리스도인인가?
그리스도교 역사에 대한 이야기	
2강	그리스도교 전통의 형성과 전개 과정 I :정교회와 천주교회
3강	그리스도교 전통의 형성과 전개 과정 II :개신교회, 종합토론
4강	다양한 교회인가, 하나인 교회인가? :교회일치운동
그리스도교 교리에 대한 이야기	
5강	나는 어떻게 구원 받는가? :‘구원’에 대한 상호 이해
6강	성경만으로, 성례만으로? :말씀과 성례(성사)에 대한 상호 이해
7강	“누가 교회인가?” :교회의 직무와 직제에 대한 상호 이해
하나님의 창조세계 안에서 모든 생명의 일치	
8강	오늘의 생태 위기 속의 그리스도인
9강	그리스도교 영성과 그리스도인의 삶
10강	(종강)종합토론, 수료식

2019년 그리스도인 일치 기도 주간 자료집
1월 18일~25일

한국 그리스도교 신앙과 직제협의회

03129 서울시 종로구 대학로19 기독교회관 706호

전 화 · 02-743-4471

팩 스 · 02-744-6189

출판협조: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 총회

원문:

Resources for The Week of Prayer for Christian Unity and throughout the year 2019, "Justice and only justice you shall pursue (*Deuteronomy* 16:18-20)", Jointly prepared and published by the Pontifical Council for Promoting Christian Unity and the Commission on Faith and Order of the World Council of Churches

영어:

http://www.vatican.va/roman_curia/pontifical_councils/chrstuni/weeks-prayer-doc/rc_pc_chrst_uni_doc_20180621_week-prayer-2019_en.html

